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6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42억원을 총 52억원을 들여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한다.

#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진

### 공모사업 선정 10억원 지원비 등 52억 들여 건립...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6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42억, 총 52억을 들여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특성화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간 독서·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실사를 2회 실시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이원주 남원시장이 현지심사에 참여

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2개소 중 남원시가 선정되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하정동 소재 남원시립도서관이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남원교육문화회관과 근접하게 입지하여 이용대상이 중복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립도서관 이전을 고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2015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흥익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도통동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어 도통동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아동·유아자료실과 청소년자료실, 수유실, 놀이방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세미나실 등 요즘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후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책임지는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순조

### 가구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지붕·벽체·부엌·화장실 등 실생활 필요한 부분

순창군이 소외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120가구를 선정해 현재 53%의 공청율을 보이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수리에 필요한 공사 자재 구매비용과 최소한의 인건비를 산출해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불량한 주택의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의 집수리를 자부담금 없이 복권기금 50%와 군비 50%를 부담해 지원



순창군이 소외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군은 사업의 취지를 살려 11개 읍·면을 통해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했다. 한편 순창군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저소득계층 81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소비자 행정부문 대상 수상

### 주민문화 향유확대 높이 평가

순창군이 1일 국회 행정기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공기관 및 기업 등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상이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시상식 장에는 입법부문, 행정부문, 의회정책부문에서 선정된 수장자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헌정기념관을 가득 메웠다. 순창군은 그동안 문화해택에서 소외된 군민들을 위해 군립도서관, 작은 영화관, 미술관 등 다양

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양성평등 기본조례,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등 남성위주의 농촌사회를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가족문화 중심'의 문화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순창 운동'을 전개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 등을 정착시켜 쓰레기 반입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클린순창 운동'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지 않다는 신념을 군민들에게 심어주 소비자들의 모델을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신제품 '베리톡스' 출시예정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와 베리팜농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의 자유공모 과제로 진행된 연구로 진행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1일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디톡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어 음료시장과 소비 타겟을 겨냥한 제품개발을 했다. 이번에 출시할 식이섬유강화 음료는 연구를 통해 식이섬유가 함유 더 강화된 해독주스를 간편하게 섭취하도록 분말타입으로 제조했으며 제품은 과일·채소류를 주 원료로하는 제품과 곡물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으로



베리톡스 2종으로 개발됐다. 음료개발은 지난해 8월부터 연구소와 베리팜농조합법인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다. 베리톡스 음료는 특허출원 완료 후 7월 중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경찰서, 6월 한달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에서는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불법총기 및 화약류 제조·판매·사용 등 전반적인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으로 특히, 무허가 총기제조 및 허가총기 무단반출, 인터넷·SNS 등 총기거래 또는 그 목적의 글 게시행

위, 판매 업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불법 판매된 총기, 분실 수배된 총기를 미신고 후 불법 소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실경찰서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토록 홍보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내수면어업 신청서 접수

순창군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군은 섬진강과 오수원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최대 25명까지 패류채취업에 한해 허가하게 된다. 신청자격 조건은 2016년 5월 1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순창군에 두어야 하며, 신청 방법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계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해도 무방하다. 신청 방법은 희망 어업 구간별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 1명을 선정한다. 단 선정인원이 2명인 구간은 2명을 선정하며, 세대 당 2개소 신청자는 결격 처리하고 선정 평가 시 동점일 때에는 생계관련, 부양가족, 장애인 등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지방세 및 과태료, 새농촌육성기금, 각종 군 사용료가 체납되었거나 수산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 허가를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산림축산과 축산경영계 ☎ 660-1914,193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자활센터, 전국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동섭)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실적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활사업의 모범적인 운영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120개), 농촌형(53개), 농촌형(65개) 등 유형별로 진행됐으며, 군지역자활센터는 65개 농촌형 센터 가운데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돼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우수기관 마크가 새겨진 현판을 수여 받았다. 이와 관련,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2년 7월 임실제일교회화 운영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자활근로사업단 8개, 자활기업 7개, 사회서비스 돌봄사업단 운영을 통해 12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사사업과 밀반찬 사업단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제공하고 집수리, 복지시설 파견도우미 사업, 돌봄사업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 순창서, 선도프로그램 '지가지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순창 응기체협관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20명이 함께 '지가지우(知己之友)'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가지우 선도(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관이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 쥘기, 물레 체험, 나만의 그릇 만들기, 컵에 예쁜 그림 그려 넣기 체험 등을 통해 차분하게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고, 강천산 맨발 산책로를 걸으며 심신을 정화하고 강천사에 들러 주지스님으로부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나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며, 특히 나만의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감을 말했다고 "학교 생활을 할 때 항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